

2021년 09월 12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7편 3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37편 39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58장(통190) 샘물과 같은 보혈은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1장 13~25절(신약p.377)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 ◎ 말씀선포 / 거룩한 삶을 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얻은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밝히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에서 흘릴 피가 바로 언약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밝히셨고, 베드로역시 본문 18~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구속의 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분명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이지만 이 구원의 선물, 은혜는 생명의 값을 치루고 주어진 최고 가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 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 명하셨고, 레위기 11장 44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역시 본문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 받은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긴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고 보응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직 우리가 살아온 삶속에서 행하여진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룩한 삶의 가치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적 즐거움과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거룩한 삶에 집중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1~23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서 그저 나그네들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도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일시적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오로지 거룩한 일에 드리는 지혜롭고 신중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 2.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그릇된 행동들이 습관처럼 남아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정신적 문제까지 생겨 변호사 일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찾아오는 무기력증과 불안 그리고 자살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 10년간이나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화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며 이뤄 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힘을 주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 삶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울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노회에 속한 118개의 교회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법안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는 법안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합법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교회의 복음 선포와 사역에 대하여 정면으로 방해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임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듣고 이런 좋은 법안을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법안들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해치고, 더욱 이 시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로 만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함의 가치를 점점 희석시키고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란도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성령님이 힘과 지혜를 주셔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36장(통383) 한난과 핍박 중에도

## ◎ 폐 회 / 주기도문